

King Lear의 Q₁ 본문

李 京 植

(人文大 英文科)

*Lear*는 1607년 11월 26일에 'Nathanael Butter'와 John Busby에 의해서 판권등록되었다가 1608년에 Butter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이것이 소위 *Lear*의 초판본인 제일사절판(이하 Q₁)인 것이다. Q₁는 1619년에 1608년이란 출판연대를 갖고 출판된 *Lear*와 구별짓기 위해서 'Pide Bull' 판이라고도 불리운다. 'Pide Bull'은 Q₁의 간기에 표시된 Q₁의 판매처이다.

*Lear*의 Q₁은 2H6, 3H6, *Romeo*, *Hamlet*, *MWW*, H5 등의 역사절판들(bad Quartos)이 지닌 그런 저질의 본문(bad text)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의심스런 대목들을 갖고 있어서 R3의 Q₁와 더불어 'doubtful Quartos'로 불리우고 있다. 본 논문은 *Lear*의 Q₁가 지닌 본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들을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Lear Q₁의 본문이 부분적으로 저질임을 말하여 학계의 관심을 끈 최초의 사람은 E.K. Chambers였다. *William Shakespeare: A Study of Facts and Problems* (1930)에서 Chambers는 Q₁는 배우들이 삽입한 연결('connective')구절들을 갖고 있으며, Q₁가 지닌 틀린 자구들('misreadings')의 다수가 배우들의 실수들('blunders')이나 이로 인한 오청('mishearing')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행의 뒤바뀜(mishneation), 끝마 이외의 구두점이 거의 없는 점, 운문이 산문으로 자주 인쇄된 점 등의 특징은 Q₁가 'reported text'임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Chambers는 이 텍스트가 기억에 의한 'report'이기 보다는 속기에 의한 'report'일 것이라고 했다.

I think that the characteristics of Q point to a reported text. It is, of course, a much better version than the bad Quartos of 2, 3 *Henry VI*, *Romeo and Juliet*, *Henry V*, *Merry Wives*, and *Hamlet*. In particular it does not misplace bits of dialogue within a scene, or bring in bits from other scenes or other plays. Possibly it was produced, by shorthand and not memorization. The reporter, except for subconscious substitutions by himself or the actors, has not got his words badly.¹⁾

Lear text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추구한 Madeleine Doran은 *The Text of "King Lear"*

1) E.K. Chambers, *William Shakespear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30), 1 pp. 465-6.

(1931)에서 극장에서 사용되던 셰익스피어의 MS의 첫시본이 인쇄인 Nathaniel Butter에게 넘어가 Q₁를 위한 인쇄원고로 쓰였다('the first quarto was set up from a manuscript containing the first draft of the play much revised')²⁾라고 했다.

Lear Q₁의 근원이 reporting 입을 믿지 않는 Doran이 Chambers가 주장하는 속기설을 배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the conclusion that Charactery has certainly given rise to a selected number out of the total class of variants which might have come about through any mnemonic agency is clearly inadmissible³⁾

요컨대 Doran은 Q₁가 셰익스피어의 MS에서 직접 온 것이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뜻 중에는 셰익스피어의 원고기 깨끗했다는 Hemminge와 Condell의 예킨(blotlessness)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Q₁의 서지공이 범한 잘못들, 특히 운문에 대해 저지른 잘못들은 셰익스피어의 MS의 'foulness'에 기인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Lear Q₁가 셰익스피어의 MS에서 직접 인쇄되었다는 Doran의 의견은 비단 Lear의 본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원고의 상태에 대한 통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W.W. Greg가 Amsterdam 대학에서 행한 강의들에서 Doran의 논저들을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분석한 것을 보아도 Doran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중요시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Greg의 강의는 1933년에 'The Function of Bibliography in Literary Criticism Illustrated in a study of the Text of King Lear'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Greg는 Doran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인 Lear Q₁의 성격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Greg는 Q₁의 근원은 공언을 속기로 기록하여 믿든 report라는 Chambers의 속기설을 지지한다.

Q₁가 셰익스피어의 MS에서 왔다는 Doran의 입장은 대체로 두 가지의 강점을 지닌다. 첫째 Q₁가 report일 경우 그것이 축소안된 3,092행의 텍스트일 수 없을 것이라던 검토 문제 R. B. McKerrow의 간접적인 지지를 받은 점이다. McKerrow는 1931년에 발표한 'The Elizabethan Printer and Dramatic Manuscripts'⁴⁾에서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작품의 본문들이 저질인 것은 인쇄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인쇄원고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작가의 'foul papers'가 인쇄원고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2) Madeleine Doran, *The Text of "King Lea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1), p. 100.

3) *Ibid.*, p. 148.

4) R.B. McKerrow, 'The Elizabethan Printer and Dramatic Manuscripts', *The Library*, 4th Series, Vol. XII, No. 3 (Dec 1931), pp. 253-75.

II

Greg 는 ‘The Function of Bibliography in Literary Criticism Illustrated in a Study of the Text of *King Lear*’에서 *Lear* 본문에 대한 연구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서로 구분되는 다섯가지 문제들을 그 대상으로 갖고있다고 했다. 곧 (1) 초기 Q 판들의 수와 순서, (2) Q₁의 여러 권들(different copies)간에 존재하는 차이들(differences of reading), (3) Q₁의 인쇄인이 사용한 MS, (4) F₁의 인쇄인이 사용한 원고, (5) Q 와 F 본문들의 관계와 현대 editor가 채택해야 할 절차(‘procedure’)등이다.

(1) 초기 Q 판들의 수와 순서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1866년에 Clark 와 Wright 는 *The Cambridge Shakespeare*, Vol. VIII 에 부록 ‘Preface’에서 초기 Q 판들의 수는 1608년을 출판연대로 지닌 ‘Pied Bull’과 ‘N. Butter’등 두 edition 뿐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버렸다. 이들은 이 두 판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옳은 답을 주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복한 추측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Pied Bull’ Q 가 앞선다고 하였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근거제시에 있어서 자신없고, 애매하고, non-committal 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The question is very difficult to decide, and at most is one rather of bibliographical curiosity than of critical importance

Lear 의 두 초기 Q 판들이 얼마 걸지않은 시간의 차이로 1608년에 출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논리적 귀결은 문제삼지 못했으며, 서지학적인 호기심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그것의 중요성을 흐리게 했다.

그러나 1908~1910년에 Pollard, Greg, Neidig 등이 소위 ‘Pavier Quartos’는 개별 Q 들이 지닌 연대에 관계없이 1619년에 인쇄된 것임을 밝혀냄으로써 ‘N. Butter’ *Lear* 는 1608년대가 아니라 1619년에 출판된 것이 들어난 것이다.

(2) Q₁의 권들 간에 보이는 본문상의 차이 혹은 변형(variant)들의 문제도 거의 해결되었다. 즉 이 변형들은 당시의 인쇄소의 관행의 하나인 ‘stop-press correction’에 기인했다.

그런데 *Lear* 의 Q₁에서 보는 변형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종류의 것만은 아니다. verso 페이지의 첫 단어가 교정됨으로 해서 K4의 recto 페이지의 catchword 를 변경시킨 것을 보면 sheet 의 양쪽면을 특정할 수 박아낸 후 기계를 멈추고 그 sheet 의 양 forme 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impression 들을 다 뽑아내었다. Greg 는 어째서 sheet 가 이렇게 두개의 서로 다른 무리(‘batches’)로 인쇄되어야했는가는 실비라고 말했다.

이 실비를 Greg 는 1940년 그의 *The Variants in the First Quarto of ‘King Lear’*에서 풀어버렸다. 현존하는 12권의 Q₁를 분석한 결과 그는 sheet K(outer forme이 ‘variant’ forme 이지만 inner forme 의 교정은 한개의 catchword 와 한개의 사소한 misspelling 을 지

님)를 제외하면 모든 variant sheet(C, D, E, F, H)에 있어서의 변형들은 한 forme에서만 발견됨을 알아내었다. 또 'variant' sheet 들의 'invariant' forme 들은 교정된 상태(corrected state)를 갖고 있으며, 'variant' forme (때로는 inner forme, 때로는 outer forme)은 인쇄기에 먼저 들어간 forme 입도 그는 알아내었다. 먼저 기계에 들어간 forme 에서 전체 'pull'의 약 반이 인쇄되어 나오면 기계를 정지하고 교정된 곧 'invariant' forme 을 대신 기계에 넣어 필요한 수의 'pull'을 모두 뽑아내었다. 이 forme 의 인쇄가 끝나면 정지되었던 'variant' forme(이제 교정이 완료된)이 기계에 넣어져서 나머지 반 정도의 'pull'이 이로부터 뽑아졌다. Greg 의 위대한 발견은 Q₁의 'invariant' forme 들이 교정된 상태(corrected state)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3) Q 텍스트의 근원의 문제는 Doran 과 Chambers 의 의견들과의 관계에서 검토된다. Chambers 가 Q₁를 공인에서 만들어진 reported text 라고 주장한데 반하여 Doran 은 Q₁를 작가의 자필원고에서 인쇄된 것이라고 한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양자는 F Lear 가 주로 promptbook 에서 인쇄되었으며 Q 와 F 가 다 MS 에 없는 곧 인쇄인들에 의해서 도입된 잘못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Chambers 은 이 이외에도 배우들과 보고자의 잘못으로 양 텍스트간에 차이가 생겼다고 했으며 Doran 은 양자의 차이는 셰익스피어 자신이 무대본('book')에 가한 수정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Greg 는 이 두 설을 검토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Lear 의 400행 정도가 단일 'authority'에 기인한다. 이중의 300행 정도는 Q 에 의해서 공급되었으며 100행 정도는 F 에서 왔다. 우연히 생긴 생략들(omissions)도 있지만 주로는 'variant cutting'에 의한 것이다. Doran의 대본수정설은 그리 용이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못된다는 것이다.

Q 본문의 주요한 특징들로서 Greg 는 운문이 산문으로 혹은 산문이 운문으로 잘못 나타난 것(misrepresentation), 결함있고 오도적인('defective and misleading') 구두점, 불필요한 군말('redundancy'), 자구의 대체('substitution')를 들었다. Q 의 본문이 주는 인상은 인쇄인이 갖고 일한 원고에는 운문과 산문의 구별이 되어있지 않았고 구두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Greg 는 말한다. 이것은 물론 속기에 의한 보고의 특징인 것이다.

군말도 본문을 확장내지 불필요하게 늘린 것으로서 이 목적으로 쓰인 도구는 감탄사, 허사, 호격, 계사등과 기타 허스한 구들임을 지적하면서 Greg 는 이것도 reported text 들의 특색이라고 했다. 요컨대 Greg 는 보고자의 오청(mishearing)을 들어내는 것으로 보아 Q 를 Chambers 와 같이 report 로 본다. 또 Greg 는 Q₁가 report 라면 그것은 속기에 의한 report 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Greg 는 Bright 의 *Charactery* 나 Bale 의 *Brachygraphy* 로 Q₁의 본문을 엮어내는 것이 가능했다고는 믿지 않으나 1602년의 John Willis 의 *Arte of Stenographie* 가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1605년에 Heywood 의 *Troubles of Queen Elizabeth* 가 속기로 보고되었으며 이를

출판한 사람이 *Lear*의 Q₁를 출판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Greg의 결론은 *Lear*의 Q가 속기보고라는 것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4) F text의 근원 문제는 본논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요점만 말하겠다. Greg는 F가 Q의 결함투성이의 구두점들을 그대로 재생시켰고 뜻이 통하지 않는 명백한 오자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산문이 운문으로, 운문이 산문으로 잘못된 Q를 도처에서 그대로 따른 점으로 보아 F는 Q₁의 한 권을 인쇄원고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Greg는 F가 promptbook MS에서 직접 온 것이라는 Doran의 설을 일축하고 sheet E, H, K가 교정안된 상태로 있는 Q₁의 한 권에서 인쇄되었다는 P.A. Daniel ('Introduction', *Praetorius Facsimile of Q₁* (1885))의 설을 받아들인 것이다.

(5) 두 텍스트의 권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있다. Doran의 주장대로 Q가 셰익스피어의 자필원고에서 인쇄되었다면 Q의 본문상의 권위는 클 것이다. 또 F가 무대본에서 직접 인쇄되었다면 이것 역시 권위가 클 것이다. 그러나 만약 F가 교정된 Q₁의 한 권에서 인쇄되었다는 증거가 있게 되면 F의 본문상의 권위가 그리 큰 것은 못되는 것이다.

Greg는 *Lear*의 본문들에는 아직도 연구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단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피했다.⁵⁾

III

Lear Q₁가 속기에 의한 report라는 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Dyce, Collier, Malone 등 19세기의 셰익스피어 편자들은 셰익스피어의 저질의 본문들이 공연을 속기로 기록한 것을 전사한 것에서 인쇄되었다고 했다. 20세기 초에는 독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크게 일어났다. 이들은 속기에 의한 불법출판을 언급한 Heywood의 말들을 근거로 삼고있지만 20세기 초의 영미학자들은 속기설이 악사절판들에서 볼 수 있는 회상적인 구절들(remniscent passages)과 양질의 구절들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면서 이를 크게 신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Lear* Q₁의 경우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Chambers와 Greg 같은 굴지의 학자들이 속기설을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의 학자 W. Matthews는 독일학자들의 속기설을 반박했다. 그는 Timothy Bright가 *Characterie. An Arte of Shorte, Swifte and Secrete Writing by Character* (1588)에서 기술한 속기체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소개하고 이 체계를 가지고는 공연을 속기로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 독일학자들이 주장하듯 동의어와 반의어에서 생기는 잘못들이 유일한 잘못들의 원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약자(abbreviation)도 잘못의 한 원천이 된다고 했

5) W.W. Greg, 'The Function of Bibliography in Literary Criticism Illustrated in a Study of the Text of *King Lear*', *Neophilologus*, XVIII (1933), pp 241-62.

다. 따라서 Bright의 속기체계가 사용되었음을 확신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1) the tremendous grasp of English vocabulary required by the stenographer, (2) the degree of mental alertness necessary to assign words to their true Charactericall words, (3) the difficulty of learning and of distinguishing between over 550 words (if particles are included) which have very similar signs, (4) the slowness of the system caused by the method of writing in columns and the necessity of moving the hand backwards to write the initial letters⁶⁾

이상의 네가지 문제 때문에 Bright의 속기체계는 느린 대화를 받아적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Matthews는 내렸다. 그와 같은 속기체계로 어떤 글을 공인중에 기록하여 출판을 위한 전사본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최악의 'corrupt transcription'이 될 것이라고 했다.

These four points make it highly improbable, I think, that anyone could have written the system at anything like the speed necessary for taking down even a slow speech. Finally the error quotient of approximately 50 per cent for the synonyms and antonyms, and possibly as much for pronouns, tenses, plurals and singulars of nouns, etc., together with the probability of omissions, make it in the highest degree unlikely that, even if it had been possible to take down speech in Characterie, anything but the most corrupt of transcriptions would have been possible⁷⁾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악사절판들은 Bright의 속기로 되었을 경우 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전사본들이며, Bright의 'Characterie'는 글을 보고하는데 쓰일 정도의 실용성은 없다는 결론이다.

J.Q. Adams는 *Lear*는 Q의 텍스트와 무대본에 기초한 F의 텍스트등 두개의 독립된 본문으로 전해내려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두 텍스트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F가 Q에 들어있는 약 200행 정도를 생략하고 50행 정도를 첨가한 점과 Q가 시종 mette가 와전되고 verse-lining이 망쳐지고 구두점이 좋지 않게된 점 이외에 이 두 텍스트의 차이는 단 한가지 곧 동사(때로는 명사)의 형이 Q와 F 간에 끊임없는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has, hath; ye, you, wrote, writ; smite, strike; castiff, coward; tax, task 등이 그 예인데 이들은 의미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동사들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셰익스피어가 전사본문을 수정하였기로서 이런 식으로 하찮은 변경을 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Adams는 Doran의 설을 그럴듯하지 못한 것으로 돌린다.

*Lear*를 1607년 11월 26일에 판권등록한 Nathaniel Butter와 John Busby는 셰익스피어의 해적판을 낸 경력이 있는 출판업자들이었다. Nathaniel Butter는 1603년에 *Hamlet*를,

6) W. Matthews, 'Shorthand and the Bad Shakespeare Quartos', *MLR*, Vol. XXVII, No. 3. (July 1932), p. 254.

7) *Ibid.*, pp. 254-55.

John Busby 는 1600년과 1602년에 *H5* 와 *MWW* 를 각각 불법출판했던 것이다. Adams 는 이 사실들로 미루어 *Lear* 의 Q 를 해적판으로 보며, 원고를 도둑하는데 쓴 도구를 Bright 의 속기체계라고 보았다.

세익스피어의 약사질판들이 Bright 의 속기에 의한 불법출판일 수 없다는 Matthews 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Adams 는 Bright 의 속기체계는 *Lear* 의 Q 를 엮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Matthews 못지않게 여러가지 증거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IV

Adams 의 ‘The Quarto of *King Lear* and Shorthand’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Bright 는 *Characterie* 의 서문에서 적당한 연습만 한다면 그의 속기법으로 연설이나 웅변등을 날 그대로(verbatim)를 속기할 수 있다고 했다. *The Arte of Stenographie*(1602)의 저자인 John Willis 는 Bright 의 속기법을 많은 사람이 익혔다(‘Divers men attained great readiness in the practice of that Art’)고 했다. 실제로 Jane Seager 는 1589년에 ‘the divine prophesies of the ten Sibills’를 ‘that rare Arte of Charactery invented by Dr. Bright’로 전사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쳤고, 역시 1589년에 Stephen Egerton 이 Blackfriars 에서 행한 설교가 Bright 의 속기법에 의해서 기록되어(‘taken by Characterie’) 출판되었다. 이 이외에도 속기로 설교가 도난당해 출판된 예들을 여러개 들면서 Adams 는 Bright 의 속기법의 실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혹자는 극은 설교와 다른데다가 소란한 극장에서 또 배우들의 눈을 피해 작품 전체를 속기로 적어낸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속기설을 반대하나 Adams 는 관객들이 노트를 가지고 가서 극을 관람하는 도중에 명구들을 적든 당시의 관행을 들면서 배우들이 속기사를 관중 속에서 발자레내기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속기사는 미심적인 부분은 다음 공연을 관람하면서 재검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속기설은 더욱 신빙성을 지닌다고 했다.

Adams 는 *Lear* Q₁의 출판을 허가한 Sir George Buc 도 *Third Universitie of England* (1612)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극도 속기로 적어낼 수 있다고 했고, Thomas Heywood 는 Nathaniel Butter 가 출판한 그의 *If You Know Not Me, You Know Nobody* 가 속기에 의해 해적판으로 출간되었음을 불평한 사실을 들면서 *If You Know Not Me* 를 속기로 훔쳐 Butter 에게 판 속기사가 *Lear* 를 같은 수법으로 훔쳐내어 Butter 에게 넘겼음을 보여주는 내적 증거(internal evidence)를 제시한다. 즉 양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corrupted metre, ruined verse-lineing, confused punctuation 이 같은 유형의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무대지시들에 있어서 (1) 고유명사들은 ‘and’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Lear: Enter Cornwall and Regan and Gonerill and Bastard.

If You. Enter Tame and Shandoyse and Gaye

(2) ‘graphic descriptions of the actors’ stage business’:

If You. She sleeps./She kneels./They fight./He reads.

Lear: Sleepes./He kneels./They fight./He reads.

(3) ‘accompanied by’의 뜻으로 ‘with’를 씀:

If You. Enter all with Elizabeth.

Lear: Enter France and Burgundie with Gloster.

(4) 언어상의 유사점들 :

If You Exeunt. Manet Tame.

Lear: Exeunt. Manet Kent and Gent.

1608년에 *Lear* Q₁를 낸 Butter와 Busby는 바로 그해에 Heywood의 인기극 *The Rape of Lucrece*를 판권등록했다. 이어 출판된 Q에 Heywood는 ‘To the Readers’를 달고 피거 그의 극들이 속기에 의해 도난당함으로써 본문이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질의 본문을 인쇄인에게 공급한다고 했다. Adams는 이말을 상기시키면서 속기에 의한 극의 도난은 실제로 있었음을 확신했다. 더우기 Heywood가 *The Rape of Lucrece*의 진짜 원고를 *If You Know Not Me*의 해적판을 낸 Nathaniel Butter에게 넘긴 사실은 Butter가 *The Rape of Lucrece*의 corrupt copy를 이미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Adams는 하고 있다.

Bright의 *Characterie* 이외에도 여러가지 속기교본이 당시 존재했으나 Adams는 *Lear*를 훔쳐내는데 쓰인 것은 Bright의 것이라고 믿는다. Peter Bales의 *The Writing Schoolmaster*(1590), *The Arte of Brachygraphy*(1597), *New Years Gift for England*(1600)는 Bright의 것과 비슷하나 인기가 없었고, Bright의 것과 아주 다른 John Willis의 *The Arte of Stenographie*—1602년에 창안되어 1622년에 완성됨—는 지세히 검토해 본 결과 *Lear*를 훔쳐내는데 이용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Adams는 내린 것이다.

Willis의 속기법은 ‘phonetics’에 전적으로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Lear* Q₁의 독특성 혹은 오류들을 설명하는 데는 ‘characters’에 바탕을 둔 Bright의 속기법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Bright는 각 단어마다 직선으로 된 기호(symbols)인 소위 characters를 부여하고 위치에 의해서 또 갈퀴리를 한쪽 끝이나 양쪽에 달아서 그 기호를 변경시킨데다가 이 기호들을 성하로 적었기 때문에 blank-verse lines나 구두점을 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속기사는 ‘a prick [i. e., a period] sette under the character at every breathing, or pause of the

sentenc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구두점에 대한 Bright의 유일한 언급이었음을 지적하면서 Adams는 Bright의 속기법으로 엮어진 *Lear* Q₁는 verse-lining과 구두점이 크게 잘못되었고 두대본(promptbook)에서 인쇄된 F 텍스트는 이 두가지 점에서 흠이 없다고 했다.

Bright는 558개의 기본단어('characterical words')에 개별 기호를 부여했다. 이들을 속기사가 착오없이 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운데다가 동의어와 반의어등에는 따로 기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여러가지의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 예로 *anger*의 동의어는 *rage, fury, wrath, ire, hate, cholera* 등이 있는데 이들을 r anger=rage, f anger=fury 등으로 나타내었던 것이다.

Bright는 *hit*를 기본단어로 했지만 *strike*는 *hit*의 동의어로 취급했다. 속기사는 *strike*를 *s hit*로 적었을 것이고 이를 후에 longhand로 전사할 때 *smite*로 했다. 그럼에도 F는 'strike flat the thick rotundity o' the world'에서 보듯 *smite*가 아니고 *strike*이다. 이는 속기사가 배우가 말한 바 그대로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모를까 *s hit*의 기호를 *smite*로 전사할 가능성은 크다.

한편 Bright는 반의어를 어떻게 표시했는가. *good*의 반의어 *bad, evil, wicked, vicious, hurtful, depraved* 등은 동의어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good b=bad; good e=evil* 등으로 표시되었다. F의 텍스트에 의하면 셰익스피어는 'below thy foot'라고 썼는데 Bright의 속기법에 *below*는 *above*의 반의어로서 *above b*로 되어있고 이것을 이에 상응하는 기호로 적었던 속기사가 후에 전사할 때 이를 *below*가 아니라 *beneath*로 썼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런식으로 Adams는 'appellative word', 'derivative forms', 'verbs', 'pronouns', 'number', 'comparison' 등 항목별로 설명하고 *Lear* Q₁는 Bright의 속기법으로 훑쳐 내어 엮은 원고에서 인쇄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⁸⁾

V

Doran은 Adams의 논문이 발표된 *Modern Philology*에 반론의 글 'The Quarto of *King Lear* and Bright's Shorthand'를 발표했다. Doran은 Adams의 'The Quarto of *King Lear* and Shorthand'에 찬동할 수 없으며 Matthews의 'Shorthand and the Bad Shakespeare Quartos'에 동조한다고 했다.

Doran은 Adams의 논문을 Bright의 속기법에 의한 play-reporting에 관한 'the fullest collections of evidence'의 하나라고 일컬으면서도 Adams가 끌어낸 결론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Doran은 자신의 연구에 의하면 *Lear* Q₁가 Bright의 속기법으로 기록된 notes에서 엮어진 텍스트라는 것은 가능성정도문제에 그칠뿐 찬성 불찬성간을 단정적으로 말할

8) J.Q Adams, 'The Quarto of *King Lear* and Shorthand', *Modern Philology*, Vol XXXI (1933-34), pp. 135-63 참조.

수 있는 것은 못된다고 했다.

Even without the agency of actors, a number of similar variant readings may be introduced by scribe or compositor in the course of the transcription or the printing of a text. The principle of association upon which Bright's system is based forbids the exclusion of other possible causes where the same principle would be operative, i.e., the memories of actors or even of scribes and compositors. Moreover, there are even fortuitous instances of pairs where the Quarto reading, although capable of explanation by Bright, looks somewhat as if the manuscript had been misread. It is evident that we have to do with plurality of causes, which makes impossible a strict demonstration of the use of Bright's shorthand. The argument must therefore be restricted to possibilities and probabilities.⁹⁾

Doran은 동사형태의 변형들 약 73개 중에서 19개만이 Bright의 속기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뿐이며, 인칭대명사의 경우도 총 112개 중에서 19개만이 Bright의 속기법으로 되었을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속기법에 의한 'derivative' variants는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진 variants와 구별될 수 없다고 했다. 즉 그것들이 식자공의 눈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글자의 잘못('careless dropping or addition')에 의한 것인지, copyist나 배우의 기억의 잘못때문인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Doran은 Bright의 속기법으로 *Lear*의 Q 텍스트를 읽어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동의어 및 'appellative' words에 관계된 증거이지만 이것 역시 그리 인상적인 증거가 못됨을 지적했다. Adams가 취급한 동의어 pair는 모두 24개인데 전부 속기로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 오직 세개만이 Bright의 표에 있는 단어와 현상이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3 2 7, *smite. strike* (Br *beat* or *hit*); 1.4. 297, *Heare haerke* (Br *hear*, actually *here*), 1 1 242, *respects regards* (Br *consider*)¹⁰⁾

나아가 Doran은 Q₁에 들어있는 'synonymous pairs' 전체를 조사해 보았으며 그 결과 총 130개 중에서 14개만이 Bright와 공통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내었다.

... on the showing of Bright's tables, the significance of the evidence offered is considerably reduced. In the whole play I have counted about one hundred and thirty synonymous, or nearly synonymous, pairs. Of these only fourteen are related to a common word in Bright or have the reading in Q which would best represent, in Charactery, the Folio reading.¹¹⁾

다음으로 Doran은 반의어에 있어서도 Adams의 예등이 인상적인 것이 못됨을 말하고 있

9) Madeleine Doran, 'The Quarto of *King Lear* and Bright's Shorthand', *Modern Philology*, Vol. XXXIII(1935-36), p. 141.

10) *Ibid.*, p. 144.

11) *Ibid.*, p. 146.

다. 뿐만 아니라 Doran은 Bright의 표에는 들어있지 않은 여러가지 단어들(복합어, 접두사, 파생어등)이 Q에는 많으면서 이들에 대한 설명이 Bright의 속기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Doran은 속기사가 공연을 수차 관람함으로써 그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공연중에 명구들을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 관객의 관행이었으므로 속기사가 발각될 염려도 없었다는 Adams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Doran은 *Lear* Q₁의 길이로 보아 이것이 일반 극장에서 공연될 때 이 version으로 공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속기사가 전체 공연을 받아베끼는 것과 관객들이 명구들을 가끔 베끼는 것은 비교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It will be said that the stenographer might visit the theater more than once to make up deficiencies in his first report. Indeed, he would have to, and a good many times, one feels, before he could obtain anything at all satisfactory. Yet this necessary condition of repeated performances might have been impossible to meet, especially if, as the length strongly suggests, the play was not performed in this version at a public theater. To speculate on whether or not he would be detected in the theater, or allowed to continue if detected, is more or less useless, since we know so little about conditions in the playhouse and the attitude of the companies toward such practices. I would only say that Dr. Adams' point about the young men who evidently did take down purple passages from spoken plays does not seem to me an exactly comparable case. To jot down occasional phrases is quite another thing than writing steadily throughout an entire performance. Two or more stenographers working in conjunction with one another, as they would have to do if they were to see that the note-taking did not stop when one man needed a rest, would be even more noticeable.¹²⁾

끝으로 Doran은 Bright의 속기를 기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어휘들(특히 *Lear* 원의 어휘들)을 열거하면서¹³⁾ 과연 *Lear* Q₁가 Bright의 속기법으로 엮어낼 수 있었을 것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겼다. 물론 Doran 자신은 어디까지나 *Lear* Q₁가 Bright의 속기법으로는 도저히 엮어질 수 없었다는 쪽의 부사인 것이다.

VI

Lear Q₁의 본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Greg은 1936년에 “*King Lear*”---*Mishneation and Stenography*’를 발표하고 결함투성이의 Q₁의 구두점과 잘못된 행구분(*mislineation*)은 Q₁가 속기에 의한 reported text임을 말해준다고 종래의 입장을 재천명하기에 이르렀다.

12) *Ibid.*, pp. 154-55.

13) *Ibid.*, pp. 156-57.

A stenographer does not produce mislining directly. His shorthand report will contain no indication of line division at all. And it was a longhand transcription of such a report, undivided metrically and practically unpointed, that I postulated as copy. The actual misdivision would, of course, be the work of the compositor, as Mr Hubler contends ¹⁴⁾

행구분이 제대로 된 것도 많은 사실에 대해서는 능력이 다른 둘 혹은 그 이상의 서자공들이 행구분 혹은 metrical division이 전혀 되지 않은 원고를 석자할 때 생긴 걸어로 Greg는 보았다.

just what we should expect of two or more compositors of different ability making what they could of copy that presented no metrical division at all ¹⁵⁾

Greg는 *Lear* Q₁가 속기에서 생긴 것(stenographic origin)을 믿으면서도 두가지 난점을 갖고 고민했다. 하나는 17세기에 흔존한 속기법의 어느 것도 Q₁와 같이 대체적으로 정확한 텍스트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란 회의와 또 하나는 R3의 Q₁가 *Lear* Q₁에 아주 흡사한 것은 1597년에 이미 속기법으로 극을 공연중에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었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었다. ¹⁶⁾

이 난점들을 Greg는 *The Editorial Problem in Shakespeare*(1942)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는 *Lear* Q₁가 shorthand report일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어느 속기법이 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Adams가 제시한 Bright의 속기법은 불충분한 것이었고 이보다 우수하고 Heywood의 극들을 훔쳐내는데 쓰였다고 주장된 Willis의 속기법이 아니었을까 추측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속기법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를 꺼리면서 이 문제를 이 정도로 끝내기를 몹시 원했다.

As regards the system of shorthand used I must differ from Dr J Q Adams, who has argued in detail in favour of Bright's Charactery. That this could have furnished a report such as we find in the quarto of *Lear* I cannot believe: but since 1602 there had been available Willis's Stenography, an admittedly superior system, which Heywood asserted to have been actually used for the pirating of plays. I must leave it at that, for in this instance I cannot but conclude that some kind of shorthand was employed, however little I like the conclusion ¹⁷⁾

한편 Leo Kirschbaum은 *Lear* Q를 bad Q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The True Text of "King Lear"* (1945)에서 'parallel Quarto-Folio passages'를 비교연구한 결과 Q에 나터

14) W.W. Greg, "'King Lear'—Mislineation and Stenography', *The Library, The Library*, n.s. XVII (Sept. 1936), p. 175.

15) *Ibid.*, p. 176.

16) *Ibid.*, p. 175.

17) W.W. Greg, *The Editorial Problem in Shakespear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42), p. 96

난 많은 'repetitions'는 Q가 기억으로 엮어진 본문(memorial text)으로 단정하기에 족하다고 했다.

.. Q is a constant memorial corruption of the text of F.¹⁸⁾

Kirschbaum은 Greg 특히 그의 'The Function of Bibliography in Literary Criticism Illustrated in a Study of the Text of *King Lear*'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Greg가 *Lear* Q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Romeo* Q₁, *Hamlet* Q₁와 같은 역사적판으로 간주하지 않는 Greg를 못마땅해 했다. Greg는 Q의 400여개 변형들을 진본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Kirschbaum은 Q가 주먹구구식으로 엮어진 질나쁜 텍스트이기 때문에 F readings의 뜻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이외에는 어느 부분도 이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Q에서 보는 수정들은 기억에만 의존하여 본문을 재구한 자들의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하한 권위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F가 유일한 진본을 지닌데 반하여 Q는 'corrupt memorial reconstruction'이란 결론을 내렸다.

Kirschbaum이 그의 증거로 내세운 것들 중에서 한가지를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F (2.2.115): Kent 'To go out of my dialect, which you discommend so much,'

Q (E2^r) Kent 'To go out of my dialogue which you discommend so much,'

Q의 'dialogue'는 'dialect'의 오칭('mishearing')일 것이며, 어떤 편집자도 Q의 변형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했다.

Lear Q가 기억재구라는 Kirschbaum은 자연 Chambers와 Greg 등의 속기설을 배격한다. 그는 이설을 주장하는 자 누구도 아직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서 Bright나 Willis의 속기법이 보통 속도의 말을 단 일행도 적어내기에도 충분히 효율적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Heywood가 사건의 발생한지 25년이나 후에 한 말을 절대적인 증거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Heywood 자신도 추측적인 말을 했을 뿐이며 저질의 텍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려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No proponent of the shorthand hypothesis for the bad quartos has ever come remotely near demonstrating by actual test that either Bright's or Willis' system was efficient enough to take down even one line spoken at the normal rate of speech. Every proponent points to Heywood's remark—written more than twenty-five years after the fact—concerning the bad quarto of Part I of *If You Know Not Me* (1605) "some by Stenography drew The plot: put it in print (scarce one word trew:)" But was not Heywood as much flabbergasted as we are by a bad quarto, and was he not merely guessing? What right have we to assume that he knew any more about how the bad text came into being than we do?¹⁹⁾

18) Leo Kirschbaum, *The True Text of "King Lear"* (The Johns Hopkins Press, 1945), p. 7.

19) *Ibid.*, p. 6, n. 17.

VII

Kirschbaum 이 *The True Text of "King Lear"*에서 내세운 *Lear* Q의 기억재구(記憶再構)설과 반속기설(反速記說)은 G.I. Duthie의 연구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되었다. Duthie는 *Shakespeare's "King Lear", a Critical Edition* (1949)과 *Elizabethan Shorthand and the First Quarto of "King Lear"* (1949)에서 Q는 reported text 앞에는 틀림없으나 속기에 의한 report는 아니라고 했다. 그 당시의 속기법으로는 극 공연을 도저히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Duthie는 *Lear* Q는 온 극단원이 한자리에 모여 기억으로 재구('a memorial reconstruction made by the entire company')한 reported text이며, reporting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모든 배우들이 한 자리에 앉아 그들의 역(parts)을 차례로 필생(어쩌면 book-keeper)에게 불러주어 받아베끼도록 했을 것이라 했다.

all the actors met together and dictated their parts in turn to a scribe (perhaps the book-keeper) who wrote down what they said as fast as he could .²⁰⁹

Duthie의 연구는 두 가지 주목할만한 점을 지닌다. 첫째 Duthie는 Greg가 *Orlando Furioso* Q의 근원을 설명한 기억재구설을 인용하여 *Lear* Q의 본문의 특성들을 설명했지만 *Lear* Q의 근원을 설명하는 Greg의 속기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Duthie는 Kirschbaum이 내세운 *Lear* Q의 기억재구설을 지지하지만 그의 단일 reporter설 대신에 복수 reporter설 즉 극단원 전체의 communal effort 혹은 memory의 소산임을 주장한 점이다.

Duthie는 *Lear* 왕의 첫 대사에서 기억재구의 특징들인 omission, repetition, substitution, anticipation 등을 발견하여 Q가 기억에 의한 와전을 나타낸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MWW*와 *Hamlet*의 악사절판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대사들만이 충실히 재생된 현상은 없다('there is no consistent variation in the standard of the reporting of the speeches of different characters')는 점을 그는 *Lear* Q가 한 두명의 배우가 아닌 단원 전체('the entire company')에 의해서 기억으로 엮어진 기억재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극단이 *Lear*를 기억으로 재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Duthie는 다른 악사절판들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즉 지방순회중인 극단이 무대본을 런던에 두고 왔기 때문에 지방공연을 위해 갑작스럽게 하나 만들어내어야 했다는 것이다.

during a provincial tour, the company having left the prompt-book (and the author's manus-

²⁰⁹ G. I. Duthie, *Shakespeare's "King Lear" a Critical Edi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49), p. 78.

cript also, if the prompt-book was a transcript) in London²¹⁾

Duthie가 *Lear Q*에 관해 기억재구설을 주장할 것은 그가 본래 가졌던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1941년만해도 그는 *Lear Q*에서 *H5*, *MWW*, *Hamlet* 등의 *Q₁*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기억재구의 흔적들('marks')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Lear Q*가 reported text 라면 그것은 Bright 이외의 다른 어떤 속기법에 의해서 엮어진듯 하다는 Greg와 유사한 태도를 취했었던 것이다.

The text is in very much better condition than the first Quartos of *Henry V*, *The Merry Wives*, and *Hamlet*. It contains some of the marks of memorial reconstruction found in these texts in plenty²²⁾

...it (the first Q of *King Lear*) may be a reported text, in which case it is probably a stenographic puacy and the product of a system other than that of Bright²³⁾

그러나 8년 후에 Duthie는 *Elizabethan Shorthand and the first Quarto of "King Lear"*를 발표하고 Bright의 *Characterie*, Bale의 *Bachygraphie*, Willis의 *Stenographie*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이들 속기법은 모두 너무나 원시적이고 조잡하여 *Lear Q*가 지닌 것의 같은 그러한 텍스트를 엮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Duthie의 기억재구설은 꽤 설득력이 커서 *Lear Q*가 속기문 밖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는 Greg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Greg의 서평을 보면 그가 Duthie의 견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²⁴⁾

날이 가면서 Greg는 Duthie의 견해를 더욱 신빙성있게 보았다. 1955년에 그는 *Lear Q*의 속기설은 Duthie의 *Elizabethan Shorthand and the First Quarto of "King Lear"*로 완전히 관측에 들어갔다고 직을 정도였다.

The last nail was perhaps knocked into its coffin in 1949 when G.I. Duthie published his book on *Elizabethan Shorthand*. Instead, the bad texts are now generally admitted to be memorial reconstructions, vamped up, for performance by provincial companies, by actors who had taken part in the plays on the London stage, though the circumstances no doubt varied a good deal from case to case²⁵⁾

또 한편은 속기설이 Duthie의 연구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 재생불능이 될 정도라고 했다.

21) *Ibid.*, p. 75.

22) G.I. Duthie, *The Bad Quarto of "Hamlet". a Critical Study*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41), p. 24.

23) *Ibid.*, p. 25.

24) W.W. Greg's review of Duthie's *Elizabethan Shorthand and the the First Quarto of "King Lear"* (Oxford: Blackwell, 1949), *MLR*, XLIV (July 1949), pp. 397-400.

25) W.W. Greg, *The Shakespeare First Folio*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5), p. 73

all speculation on these lines has been scotched by Duthie's recent investigations and is not likely to be revived ²⁶⁾

요컨대 *Lear* Q는 Greg와 같은 대학자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의 와중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Greg는 *Lear* Q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최종적인 언급을 다음과 같이 했다,

It is to be feared that a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theories so far advanced can on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it remains as true today as it was twenty-five years ago that *King Lear* still offers a problem for investigation ²⁷⁾

'twenty-five years ago'는 Greg가 British Academy를 위해 1928년 5월 23일에 Annual Shakespeare Lecture로 읽은 논문 'Principles of Emendation in Shakespeare'를 지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Greg는 *Lear*의 1막 2장(21행)에 나오는 Edmund의 말 'shall to the legitimate' 중의 'to' (F₁는 *to*, Q₁₋₂는 *too*이고 Edwards가 'top'을 제안한 이때 Capell과 Old Cambridge Editors가 이를 채택)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었던 것이다,

Be this as it may, it seems to me that the text of *King Lear* is considerably better than our textual theory it has any right to be, and I think there still remains a problem for investigation ²⁸⁾

이 필은 다시 우리에게 인상작용을 이르게 준다. 왜냐하면 'there still remains a problem for investigation'은 이미 언급된 바 있는 Greg의 유명한 논문 'The Function of Bibliography in Literary Criticism Illustrated in a study of the Text of *King Lear*' (1933)를 끝맺으면서 그가 반복한 말이기 때문이다.

at the same time I can see here and there sufficient contradictions in the evidence to make me cautious, and I am inclined to think today what I thought five years ago, that there still remains a problem for investigation Which shows that even bibliography is not yet able to answer all questions ²⁹⁾

VIII

1950년 경에 이르러 *Lear* 텍스트의 연구는 F 텍스트가 promptbook을 대조하여 교정된 Q₁의 한 권에서 인쇄된 것이라 Daniel Greg의 견해에 일반적으로 동조한 반면에 Q의 인

26) *Ibid.*, p. 380.

27) *Ibid.*, p. 383.

28) W W Greg, 'Principles of Emendation in Shakespeare', *The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928), p. 159

29) W W Greg, 'The Function of Bibliography in Literary Criticism Illustrated in a Study of the Text of *King Lear*', *op. cit.*, p. 262

왜 원고가 된 MS의 전달문제 곧 Q의 근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된다.

Duthie의 기억재구설은 모든 학자들의 한결같은 찬성과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Alice Walker는 1952년에 "King Lear"—The 1608 Quarto'를 발표하고 Duthie의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억재구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면을 제기했다.

Walker는 Q₁ text에는 배우들의 'perversions and vulgarization'이 들어있었지만 이것만을 생각하고 Q₁ 본문의 전달이론을 세우면 안된다는 신중론을 폈다. 동일한 등장인물들의 대사까지도 그 정확도가 너무나 불규칙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처리하지 못하는 전달이론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로서 Walker는 시작장면과 3막 5장에서의 Cornwall과 Edmund의 대사는 전자의 경우 본문의 질이 아주 좋지 않은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장면이 아닌데도 본문의 질이 좋은 점을 들면서 이 현상을 'report' 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³⁰⁾

Q₁의 'better parts'는 현저하게 'memorial contamination'을 갖고 있지 않은 점과 이 'better parts'와 그렇지 못한 부분의 혼재(混在)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Walker의 이론이다. 그 것은 Q₁의 인쇄원고는 'reader'가 권위있는 MS를 필생에게 불러줌으로써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reader'는 이 극의 구식구식에 친숙한 배우였기 때문에 아직 기억에 남아있던 부분은 MS를 별로 꼼꼼히 보지 않고 읽어주었고 기억에서 사라진 부분은 MS를 따라 꼼꼼히 읽어주었다는 가정을 Walker는 세우고 있다. 이 가정만이 시작장면과 같이 'most memorable'해야 할 부분의 본문 전달이 가장 잘 되지 못한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memorial contamination'을 지닌 디테이션을 phonetic speller이며, 악절에다 metre에 대한 감각까지 결하고, 잘못듣기도 잘하는 필생에게 시켰다고 볼 때 비로서 Q₁에 나타난 현상들이 F를 통해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better parts of Q₁ seem to me remarkably free from memorial contamination and they are, I think, 'good' text which can only be reconciled with the undoubtedly 'bad' text of much of Acts I-II and V, in one way by supposing that the manuscript from which Q₁ was printed was dictated to a scribe from an authoritative manuscript, that the reader was an actor familiar with parts of the play, and that (either from haste, laziness or over-confidence) he used his memory rather than his eyes for those parts on the play with which he was well acquainted but perforce paid more attention to his manuscript when his memory did not serve. This only will explain the paradox that what should have been most memorable, like the opening scene, is least well transmitted. Given dictation, with memorial contamination, to a scribe who was a phonetic speller, had a bad handwriting (or wrote in haste), who had no feeling for metre and was apt

30) Alice Walker, "King Lear"—The 1608 Quarto', *MLR*, Vol. XLVII (1952), p. 376.

to misapprehend what he heard, what emerged in Q₁, printed from his manuscript, is understandable in the light of the Folio. We cannot suppose that Okes's manuscript was, in the material sense, composite because he had the same difficulty with its bad handwriting and 'austrigula' [sic] spellings throughout. We must therefore suppose that his manuscript was written in the same hand and 'copied by the ear' throughout.³¹⁾

Walker의 설은 속기설과 기억재구설을 교묘하게 통합한 신통한 설이다. Q₁의 뒤에 놓인 MS가 foul papers로부터의 dictation이라던 foul papers를 몰래 훑쳐다가 이를 불러준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맡았던 배우였는지, Walker는 이 질문이 역설적인 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MWW*와 *Hamlet*의 bad Q의 경우에서 처럼 pirate-actor를 가장 잘 기록된 장면들에서 찾아서는 안되고 가장 잘 못 기록된 장면들을 곧 'memorial contamination'이 가장 두드러진 곳에서 찾아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Walker는 Goneril 역할을 했을지 모르는 boy actor를 내세우고 있다.³²⁾ 또 그는 문제의 pirate-actor가 foul papers 자체를 훑아넘기지 않고 사본을 애써 만들어야 했을 이유는 탄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만약 F가 무대에서 공연된 대본(acting version)을 나타낸다면 foul papers 곧 Q에 딸 들어있는 내복들(passages)은 이론상 'memorial contamination'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조사한 결과 Walker는 과연 이 가정이 옳음을 알았다고 했다. IV. iii의 잘못들('errors')은 식자공의 잘못들이며, 귀로 듣고 서둘러 베껴 때 필성이 범하는 종류의 것들이라고 했다. Q에 딸 들어있는 내복들에는 'vulgarization'이나 'interpolation'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Q의 본문전달의 독특성들 때문에 F가 'best authority'이지만 실은 Q와 F의 중간에 *Lear*의 'a better text'가 간직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Walker는 관측했다.³³⁾

Walker는 이와 같은 Q 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 (1953)에 넣었다. 여기에서 그는 *Lear* Q는 두 종류의 텍스트를 지녔다고 했다.

첫번째 종류의 텍스트(III. iv의 끝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음)가 지닌 errors는 memorial errors가 아니고 한 사람이 불러주고 또 한 사람이 이를 받아쓸 때 생기는 errors이다. 받아쓴 사람의 글씨와 절지가 좋지않아서 Q식자공이 어려움을 겪었고 의미까지 종종 흐리게 만들었다. 두번째 종류의 텍스트는 첫번째 종류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memorial errors에 의해서 더욱 오염되었다. Walker는 이 오염이 불러준 사람이나 받아쓴 사람 혹은 양자가 그 대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다.

The first kind(exemplified in the close of III. iv) is free from memorial errors and represents

31) *Ibid.*, p. 377.

32) *Ibid.*, pp. 377-78.

33) *Ibid.*, p. 378.

what the reader of the foul papers read out and the scribe took down, with such errors as the reader and the scribe might make and in a hand and spelling which gave the quarto compositor much difficulty and often obscured the meaning. The second kind of text shares these features but is further contaminated by memorial errors, presumably due to the familiarity of the reader or scribe (or both) with parts of the play. The contamination is worst in I. 1 and V. iii and heavy in II. iv.³⁴⁾

“*King Lear*”—The 1608 Quarto’에서 이미 암시했듯이 Walker는 Goneril과 Regan이 등장하는 장면이 가장 심하게 오염된 장면—위 인용문에서 지적된 I. 1, V. iii, II. iv가 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다—이라면서 이 두 역을 한 두 사람이 Q를 위한 원고(copy)를 마련하는데 관련되었다고 결론짓는다.³⁵⁾ 이들이 등장하지 않은 장면의 왜전(contortion)은 받아쓴 사람의 미숙 내지 부주의로 돌렸다.

오염된 장면에서는 Goneril과 Regan의 대사와 이들에게 말을 한 인물들의 내사가 다른 것들보다는 덜 왜전되었다면서 결국 Q를 위한 원고는 Goneril역을 담당했던 boy actor가 foul papers를 몰래 훔쳐내다가 Regan역을 담당했던 boy actor에게 불러주어 받아쓰도록 했고, 불러주고 받아쓰는 과정에서 이들이 무대에서 말하고 듣고했던 것들의 회상이 끼여 들어가 오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연 이들이 등장하지 않은 장면들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이들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foul papers를 보다 주의하여 불러주고 받아썼으며 그 결과 오염(contamination)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일듯보아 ‘nonsensical improvizations’ 길다고 해서 Q 변형들을 ‘memorial errors’로 판단하면 안된다면서 Walker는 Q 텍스트의 질을 규정하려고 했다. 즉 진정으로 심각한 기억의 오염을 지닌 장면은 I. 1과 V. iii 뿐이고 대부분은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Q readings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quarto's really serious memorial contamination is concentrated in two scenes (I. 1 and V. iii) and its oddities are superficial. Behind them, for the greater part of the play, is very good text and we shall lose much of the linguistic and dramatic subtlety of *Lear* if the most is not made of the quarto readings.³⁶⁾

IX

Walker의 설은 학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Greg는 아주 독창적이고 신기한 Walker의 이론에 감탄하면서도 선뜻 지지하고 나서지 않았다. Walker의 설을 취하려면

34) Alice Walker,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53), p. 47.

35) *Ibid.*, p. 49.

36) *Ibid.*, p. 67.

먼저 확실히 되어야 할 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memorial contamination과 이 이외의 형태의 corruption을 과연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구별지을 수 있겠는가, 두 소년배우들이 과연 foul papers를 수중에 넣을 수 있었겠으며 극장안에서 이를 전사할 기회가 있었겠는가, 극장 밖에서 전사했다면 보다 천천히 작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는 것을 풀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오염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장편에도 역시 많은 의견이 있지 않은가, 과연 F 식자공이 Walker가 말하는 만큼의 잘못을 범했을까, 이상의 의문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Walker의 설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면서 Greg는 *Lear*는 역시 쉽사리 해결 안되는 많은 본분상의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로서 Walker의 설에 대한 평을 끝내고 있다.³⁷⁾

P. Williams도 서평에서 Walker의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를 Shakespeare Problem Series (Cambridge 대학 출판사 간) 중에서 'the most important study'이며, 'an exciting book'이라고 했지만 세부에 들어가서는 Walker와 의견을 달리했다.

Lear Q의 뒤에 놓인 MS에 관해서 Williams는 Walker의 설보다는 결함은 있으나 차리리 Duthie의 전 단원에 의한 기억재구설이 더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는 Walker의 F 식자공 가려내기(identification)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같은 의견의 불일치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Williams는 Walker의 논저를 이 분야의 확 견기를 가져온 역작으로 평가했다.

In spite of modifications that future investigations may force textual scholars to make, Dr. Walker's book will stand up as one of the few important textual studies of Shakespeare. It is an important book not only for the discoveries it contains, but also for the further work that it will force others to undertake.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 will, I believe, mark the beginning of a new and rewarding re-examination of the texts of Shakespeare.³⁸⁾

Charlton Hinman도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를 Newer Bibliography의 도표로 볼 정도로 하나의 견기를 이루는 큰 업적으로 평가했다.

The New Bibliography was still flourishing when Wilson was writing about it twenty years ago, and of course it is still flourishing today. Yet certain large changes have lately been taking place, and even before Greg's death in 1959, just fifty years after the appearance of *Shakespeare Folios and Quartos*, various shifts of emphasis were already becoming plain. Indeed, if we were obliged to give a specific date to the advent of what might be styled the Newer Bibliography, we should probably have to fix on 1953, which saw the publication of Dr. Alice Walker's little book called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³⁹⁾

37) W. W. Greg, *The Shakespeare First Folio, op. cit.*, pp. 382-83.

38) *Shakespeare Quarterly*, IV (1953), p. 484.

39) Charlton Hinman, 'Shakespeare's Text—Then, Now and Tomorrow', *Shakespeare Survey* 18 (1965), p. 25.

40) A. S. Cairncross, 'The Quartos and the Folio Text of "King Lear"',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n.s. Vol. VI (1955), p. 255.

앞서 우리는 *Lear texts*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지녔기 때문에 Greg도 문제해결에 대해 비관적이었고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본래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했음을 보았다. 그런 때 학자들이 본래의 견해를 후에 수정할 경우는 비단 Greg만이 아니었다. Doan이 그러했고⁴¹⁾ Duthie도 그러했다. Duthie는 Dover Wilson과 함께 낸 *New Cambridge Shakespeare King Lear*(1960)에서는 Q 텍스트가 극단원들에 의한 기억재구이라는 설을 버리고 Walker의 설과 유사한 것을 믿게 되었다. 그는 Q₁의 근원에 관한 가장 신빙성 있는 해결('the most convincing solution')은 Q₁를 위한 원고가 *foul papers*를 디백이션에 의해서 받아온 원사본이고 이 일에 가담했던 자들 곧 불러준 사람과 받아쓴 사람은 이 극을 약간 기억하고 있었다('had some memorial knowledge of the play')는 설명이라고 했다.

J.K. Walton은 Duthie의 극단공통의 기억재구설을 'The objections which have been brought against this [i.e. Duthie's] theory do not seem to me cogent'⁴²⁾란 긍정적일 말로 받아들였고 Walker의 설을 Greg와 같은 이유로 해서 배격했다.⁴³⁾ 또 그는 F가 Q₁와 Q₂에서 인쇄되었다는 Carncross의 설도 반박했다.⁴⁴⁾

X

Joseph S.G. Bolton은 색다른 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Worn Pages in Shakespearean Manuscripts' (1956)에서 *Hamlet* (Q₂), *Othello*, *Lear*, *Troilus*, *R3*, *2H4*의 Q들에서 보는 빠진 대목들과 심한 왜전은 작가의 MS를 promptbook로 사용하는 중에 책장들을 너무 자주 넘김으로써 종이의 밑부분(lower edge)이 점차 닳아지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생겼다고 했다. 종이의 밑부분이 닳아졌거나 떨어져나가 할행 정도 유실되었을 때도 인쇄인은 그 행을 보충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Bolton은 하고 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 극의 인쇄원고에는 닳아졌거나 떨어져나간 페이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Titus*의 Q₁와 Q₂를 연구한 결과 밝혀졌다는 것이다. 즉 Q₂를 위한 인쇄원고로 쓰인 Q₁의 마지막 두 장(leaves)이 손상되어 행들이 거이 지워졌다. 이것을 누구인가가 작가나 배우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새로운 행들과 반(半)행들로 보충하였다. 이와 비슷한 일이 위에는 6개 Q들의 인쇄 중에 발생했다는 것이다.⁴⁵⁾

Bolton은 이 방면의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Lear* Q₁의 본문의 근원을 집중적으로 추구했다. 그는 'Wear and Tear as Factors in the Textual History of the Quarto Version of

41) Madeleine Doran's review of Greg's *The Variants in the First Quarto of "King Lear"* (1941), *RES*, XVII (1941), p. 474

42) J.K. Walton, *The Quarto Copy for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Dublin University Press Ltd., 1971), pp. 269-70

43) *Ibid.*, p. 272.

44) *Ibid.*, pp. 282-87.

45) Joseph S.G. Bolton, 'Worn Pages in Shakespearean Manuscripts', *SQ*, VII (1956), pp. 177-78.

King Lear'(1960)에서 Q₁에 많은 대목이 빠져있는 것은 MS copy의 9개 single leaves의 밑부분(lower edges)이 닳아졌기 때문이라는 소위 'worn pages'설을 내세웠다. 이 설의 중요한 점은 기억재구설과는 달리 인쇄원고가 셰익스피어 자신의 MS라는 것과 이 MS가 promptbook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MS가 promptbook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 가성적인 MS의 9페이지의 'lower edges'가 닳아버렸다는 추정이라고 Bolton은 말한다.⁴⁶⁾

Bolton은 Q의 본문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스케치해 보았다. 극단은 셰익스피어로부터 MS를 받은 후에 배우들의 역할(parts)을 따로 베끼고 청서본도 만들었을 것이다. 이때 필생은 약간의 편집을 가했을 것이다. 따라서 F와 Q 간에는 무대지시상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또 이 때문에 변형들에 있어서 Q가 훌륭한 reading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작기의 MS는 처음부터 promptbook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1607년 경에 extensive wearing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부 대사들이 안보일 정도가 되자 prompter 혹은 필생이 여리가지 방법으로 지구들을 써넣었다. 그러나 30여 sheet 중 9개의 lower portion이 닳아지머리가 MS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 누가 후에 이것을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1607년말에 Nathaniel Butter의 John Busby에게 배작하였다. 이들 혹은 이 중 한 사람이 다음해인 1608년에 이를 인쇄했다. 이들은 배우들로부터 도움을 받지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배우들이나 보편적인 청서본의 도움을 받았다면 찌진 그리고 결함있는 대목들을 공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식자공도 MS의 전서본을 받지 못하여 누더기 같이 된 종이장들을 가지고 일해야 했다. Greg가 *The Variants in the First Quarto of "King Lear"*에서 연구한 교정된 페이지들과 교정안된 페이지들 간의 차이는 인쇄원고가 식자공도 일아보지 못할 지구들을 갖고 있었으나 press-corrector가 이들을 그나름으로 후에 뜯어고칠 수 있었음을 밀해 준다. press-corrector는 어떤 때는 그럴듯하게 해독(예: 'a nellthu night more'가 'he met the night mare'로 교정된 것)하는데 성공했지만 어떤 때는 실패했다.⁴⁷⁾

XI

Smidt는 1964년에 'The Quarto and the Folio *Lear*'를 발표하고 *Lear* Q가 기억으로 진달된 text 곧 bad Q라는 이론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Chambers, Greg, Duthie, Kirschbaum 등이 F가 보다 우월하다는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Q들을 너무 부당하게 격하시켰다고 했다.

Smidt는 우선 Duthie와 Walker가 *Lear* Q의 report 설을 뒤받침하는 증거의 하나로 내

46) Bolton, 'Wear and Tear as Factors in the Textual History of the Quarto Version of *King Lear*', *Shakespeare Quarterly*, XI (1960), p. 435.

47) *Ibid*, p. 438.

세운 바 있는 *Lear*의 첫 대사를 분석한다. Q와 F를 나란히 인용하고 unmetrical line이 두 텍스트에 꼭 같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일종의 dislocation의 표시이며 어찌면 깨끗하지 못한 MS의 표시일 수도 있다고 했다. Duthie와 Walker는 이를 report의 한 표시로 잘못 보았다는 것이다. Repetition은 Q와 F에 다 들어있으며 (Q의 경우에는 'my'이고 F의 경우에는 'shall'이다), Q의 omission들은 개정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며 Duthie와 같이 그것을 기억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⁴⁸⁾

Smidt는 Greg를 반박하는 예를 하나 들고 있다. Greg는 *The Editorial Problem in Shakespeare*에서

Q: 'Sir, I am made of the selfsame metal that my sister is'

F: 'I am made of that selfe-mettle as my sister,'

를, 그리고 Q의 경우 'the loosening of the texture is obvious'라고 했는데 Smidt는 이와같은 redundancy는 F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

Q: '...If you sweet sway allow
Obedience, if your selues are old,.'

F: ' if your sweet sway
Allow Obedience if you your selves are old,'

Smidt는 F의 'you'는 불필요하고 리듬상으로도 틀렸다고 했다.

이어 Smidt는 Kirschbaum이 그의 *The True Text of "King Lear"*에서 'He tell thee'로 시작되는 Q의 Lear 대사 (I.iv)와 이 걱정적인 대사 뒤에 오는 Goneril, Duke (Albany), Fool, Oswald 사이의 대화를 Q 텍스트의 왜곡(corruption)의 예로 지적한 것을 그릇된 풀이로 일축했다. 그는 Kirschbaum이 'Shakespeare was too much for the reporter'라고 reported text를 인정하고 들어간때 대하여 이부분에서 보는 분명한 왜곡은 알아 맞추기 ('decipher') 힘든 MS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⁴⁹⁾

Smidt는 F가 Q보다 못한 것들—'ear-kissing' (Q:'ear-bussing'), 'great vices' (Q:'small vices')와 같은 단어들, omission, 단어와 행의 misplacing, speech headings의 혼란등—을 인쇄실만 가지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⁵⁰⁾ 그는 F 텍스트가 Greg가 주장하듯이 MS를 대조하여 교정된 Q의 한편에서 인쇄된 것도 아니고 Cairncross가 주장하듯이 Q₁의 한편과 Q₂의 할 권에서 인쇄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Q와 F 뒤에는 공통의 MS ('a common manuscript source')가 놓여있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Q와 F 텍스트들이 MS source를 가졌다는 Smidt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볼 때 Doran이

48) K. Smidt, 'The Quarto and the Folio *Lear*', *English Studies*, XLV (April 1964), pp. 152-54

49) *Ibid.*, pp. 154-55.

50) *Ibid.*, p. 156.

오래전에 발표한 이론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Smidt는 Q 텍스트의 질을 보통 생각히는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았다.

Actually the Quarto is a very good text. It has hardly any lines transposed as compared with the Folio, but only transpositions of individual words, besides a number of anonymous substitutions. And in many cases these could be transpositions and substitutions in the Folio text rather than in the Quarto.⁵¹⁾

Smidt는 *Lear* Q가 F만큼이나 우수한 본문의 부분들을 가졌으며 omission의 현상도 Q에서 보다는 F에 더 많고 Q의 것들이 더 짧으며 더 신중하게 행해졌다고 했다.

In my own judgment the Quarto *Lear* is almost as often superior to the Folio as the other way about. And the omissions in the Quarto are not only fewer and shorter than those in the Folio but also seem more judicious. There is little indubitable mishearing, but a good deal of misreading in the Quarto, and it is to be suspected that the copy was in a rough handwriting and was perhaps lacking in punctuation and in verse division, at least for long stretches.⁵²⁾

Lear Q가 기억재구의 악사절판이란 설은 Q의 극히 일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별로 추천할만한 설이 아니며 Q가 memorial report란 설은 견고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Smidt의 입장인 것이다. Q의 텍스트가 양질('good')의 것임이 완전무결하게 증명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저질('bad')의 것임도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R3Q의 경우처럼 *Lear* Q는 bad Q가 아니란 것이 Smidt의 결론이다.

그러나 Smidt 역시 Greg, Doran, Duthie 등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수정하였음이 1970년에 출판된 그의 *Memorial Transmission and Quarto Copy in 'Richard III' a Reassessment*에서 밝혀졌다. 여기서 그가 내린 결론은 memorial report론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앞서의 결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즉 그는 Q 텍스트가 어느정도 기억에 의한 왜곡이 들어있는 보고된 텍스트('a reported text suffering from memorial corruption')라고 했다. 이 결과 더불어 그는 새로운 논을 폈다. Q 텍스트는 극장에서 쓰기 위해서 어느정도 변안된 것이라는 논이다. 논거는 'cuts'와 역(parts) 분배상의 경제(economies)라고 했다.⁵³⁾

이상에서 우리는 지난 40여년 간에 이루어진 *Lear* Q₁의 본문연구를 넘겨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Lear* Q₁의 본문이 지닌 문제들은 아직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다. Q₁의 본문이 속기에 의한 report란 설, 셰익스피어의 MS에서 왔다는 설, 극단전원에 의한 기억재구설, foul papers를 한 배우가 읽고 할 때

51) *Ibid.*, p. 160

52) *Ibid.*, p. 161.

53) K. Smidt, *Memorial Transmission and Quarto Copy in "Richard III" a Reassessment* (Norwegian Studies in English, No. 16 Oslo Universitets forlaget, New York Humanities Press, 1970)

우가 받아쓴 그러나 그들에게 친숙한 부분은 기억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설등이 그럴듯한 증거들을 가지고 등장하여 일부 학자들의 지지와 반박을 받았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Q가 MS source 를 가졌다는 설 보다는 reported text 란 설이 우세하지만 이것이 memorial report 인지 shorthand report 인지 혹은 기타 방법의 report 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 설들의 공통점은 그 어느 것도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수시로 자신들의 의견을 변경시킨 것을 감안할 때 *Lear Q₁*의 본문은 Greg 가 예언처럼 말했듯이 서지학까지도 모든 의문들을 대답해줄 수 없는 연구과제를 아직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Lear Q₁*는 *Hamlet*, *Romeo*, *H5*, *MWW*, *2H6*, *3H6* 등의 Q₁와 같은 bad Q 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질의 텍스트를 지닌 good Q 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Greg 는 *Lear Q₁*를 R3 Q₁와 더불어 'doubtful' Q 로 분류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로서는 Q₁를 위한 인쇄원고가 어떤 전달과정을 거쳐서 이룩된 것인지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Lear Q₁*가 지닌 여러 의심스런 대목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다.